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1월 25일(화) 총 7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 자원순환홍보교육팀장 김진이 ☎440-3576 • 담당자 이정우 ☎440-3577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특별시 인천의 좀 더 특별한 자원순환 교육

- 학생·시민 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 14,807명 체험, 90% 이상 만족 -  
 - “모든 학생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매년 참가하고 싶다” 응원 -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선포하고 환경특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시가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자생적 자원순환 실천 생활화 기반 마련과 시민 공감대 확산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 실현을 이루고자 환경특별시 인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 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자원순환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나는 자원순환 클래스’ 교육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어 총 14,807명이 교육을 체험하였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306,056명(2021. 4월 기준) 중 14,151명(학생대비 4.6%)이 교육을 참여하는 큰 성과를 얻

었고 ‘차이나는 자원순환 클래스’ 또한 총 23회 교육을 통해 656명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본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교육청 협업을 통해 추진단계부터 학교·교육청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고,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와 시정 역점 정책인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대한 관련 교육이 큰 호응을 얻는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5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교육을 진행한 학급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 강의 내용·진행방법, ▲ 강의 시간, ▲ 강의 교재, ▲ 교육적정 인원, ▲ 재참여 의향, ▲ 강사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 강사와 인천시에 대한 각각 건의사항 등 총 8개 항목으로 온라인 설문지 문자발송을 통해 진행되었고 대상자 중 463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 막연하게 학생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좋은 교재와 교육내용으로 취지가 좋아 매년 참가하고 싶다”, “인천시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교육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고마움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오홍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학생과 시민 대상별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는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을 강화하여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참고> 1. 2021년도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실적 현황  
2. 설문조사 결과(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 참고 1

## 2021년도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실적 현황

### ①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교육 실적('21.12월말)

구분	당초 계획	신청 결과	실적	비고
학교(수)	-	150	138	
학급(수)	190	1,197	617	
차시(회)	380	2,394	1,091	
학생(명)	3,800	20,409	14,151	

※ 월별·학교별 세부내역(138학교, 617학급, 1,091차시, 14,151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급(수)	차시(회)	인원(명)	학교(수)	학급(수)	차시(회)	인원(명)	학교(수)	학급(수)	차시(회)	인원(명)
소계	95	452	832	10,179	23	99	193	2,304	20	66	66	1,668
5월	30	107	183	2,535					4	12	11	316
6월	28	179	279	3,644					4	6	6	130
7월	10	39	112	912					3	12	12	301
8월	1	7	7	180	1	1	1	20	3	10	10	268
9월	12	58	108	1,432	11	40	56	904	4	11	12	267
10월	3	14	54	324	4	18	36	433				
11월	10	42	83	995	4	17	46	421	1	8	8	206
12월	1	6	6	157	3	23	54	526	1	7	7	180

### ② 차이나는 자원순환 클래스 교육 실적('21.12월말)

구분	당초 계획	실적	비고
교육(횟수)	20	23	
차시(회)	20	23	
인원(명)	200	656	

## 참고 2

## 설문조사 결과(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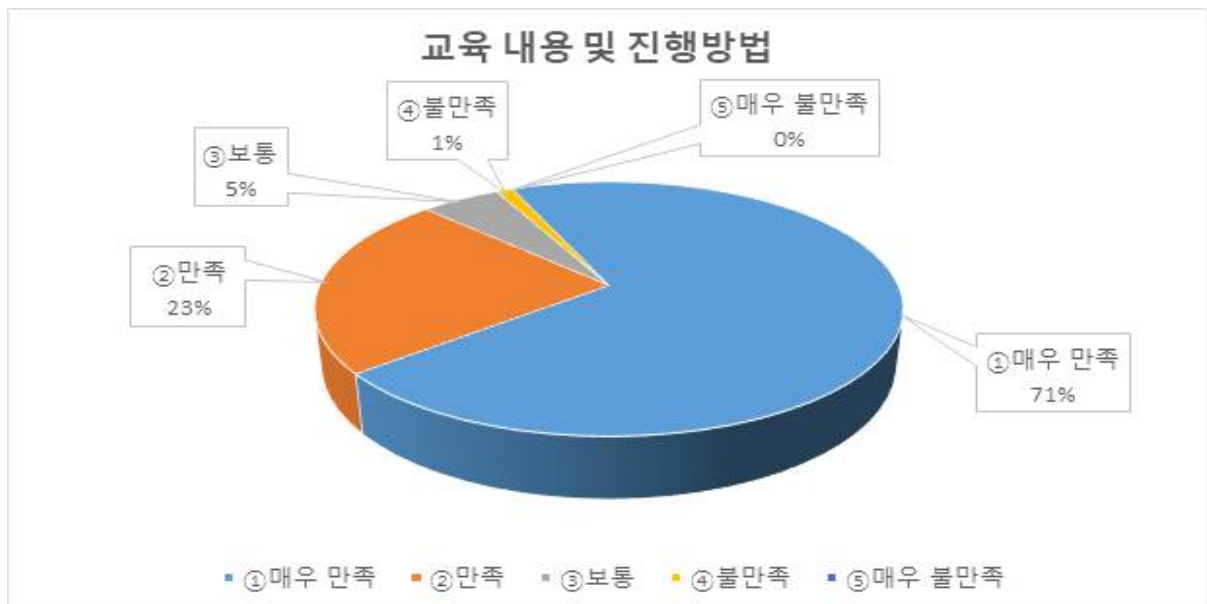
□ **조사목적:** 교육 만족도 확인 및 다음연도 개선방안 모색 등

### □ 조사개요

- (대상) 교육실시 신청학급 담당교사 \* 463명 설문 참여
- (일시) 2021. 5. 21. ~ 12. 24.
- (방법) 온라인 설문지 문자발송
- (내용) 강의 내용·진행방법, 강의 시간, 교재 만족도, 교육 적정인원, 재신청 의향, 강사 전문성 및 강사·인천시에 대한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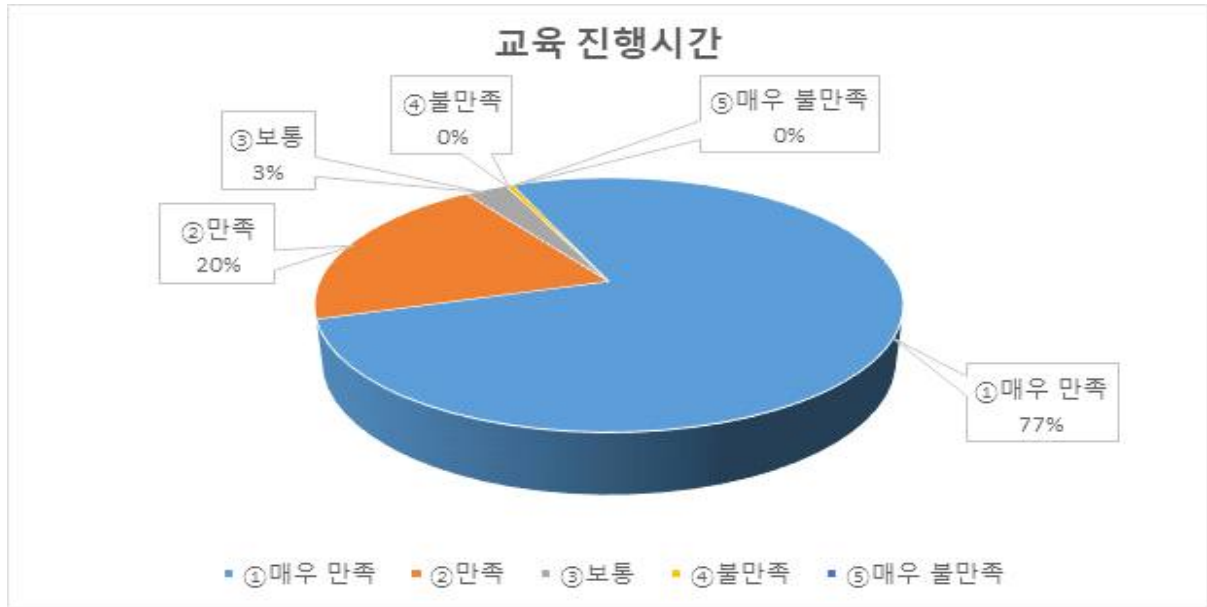
### □ 조사결과

▶ 설문1) 교육(강의) 내용과 진행방법에 만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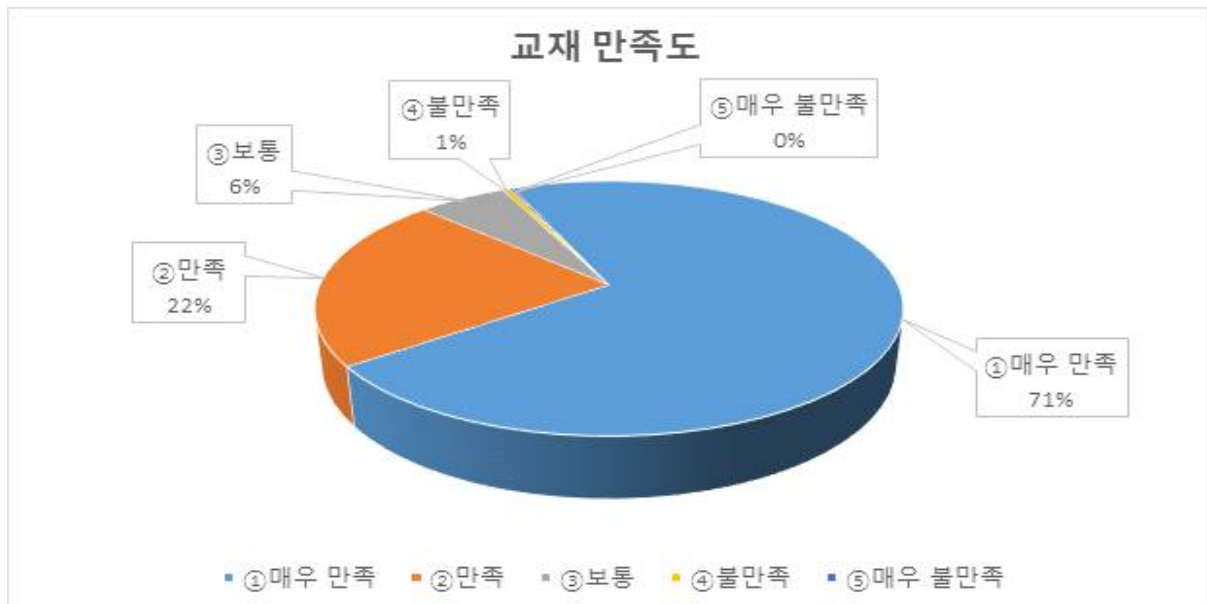
계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463명	326명(71%)	108명(23%)	24명(5%)	5명(1%)	0명(0%)

▶ 설문2) 교육(강의) 진행시간에 만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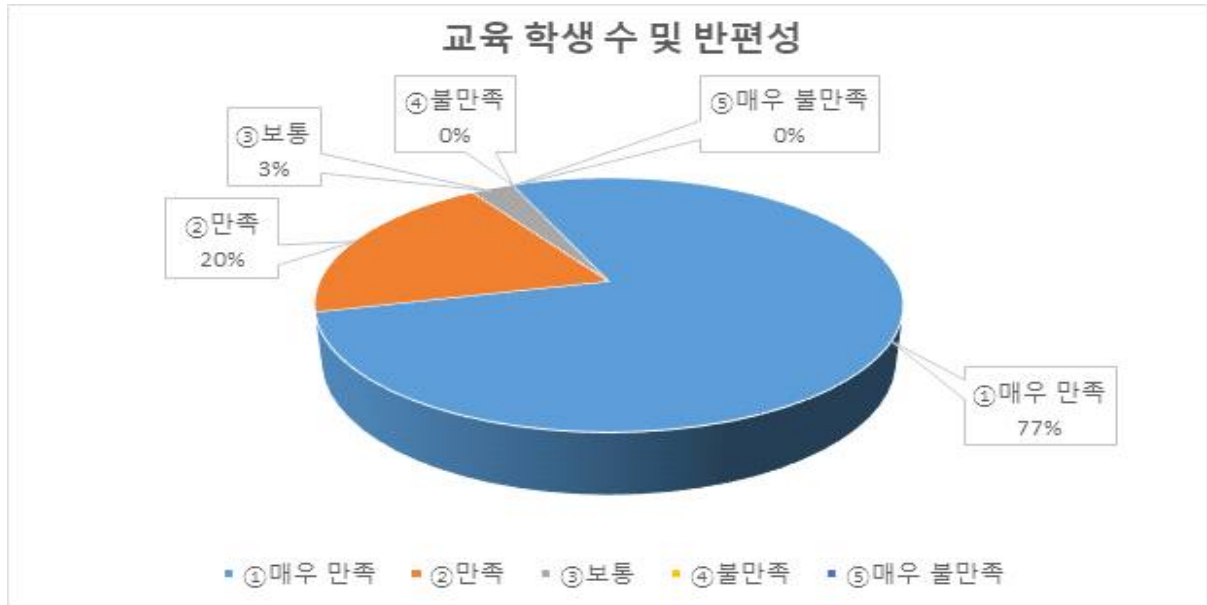
계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463명	355명(77%)	93명(20%)	13명(3%)	2명(0%)	0명(0%)

▶ 설문3) 교육(강의)에 사용된 교재(PPT, 영상, 활동지)에 만족하였다.



계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463명	330명(71%)	103명(22%)	27명(6%)	2명(1%)	0명(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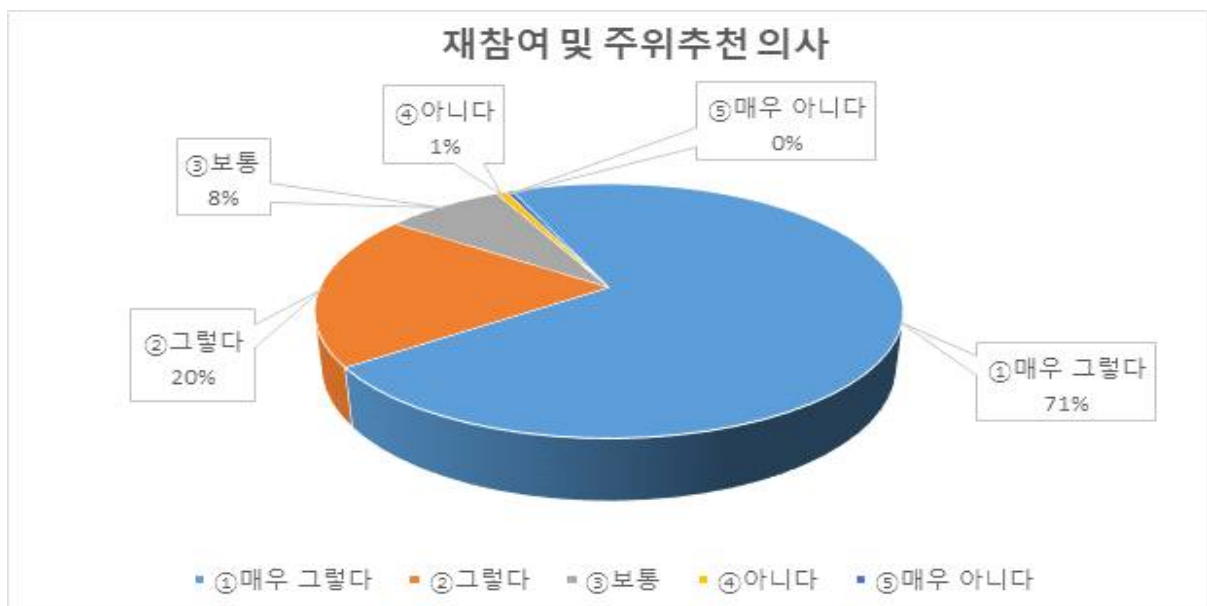
▶ 설문4) 교육(강의)에 참여한 학생 수와 반 편성에 만족하였다.



계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463명	359명(77%)	91명(20%)	13명(3%)	0명(0%)	0명(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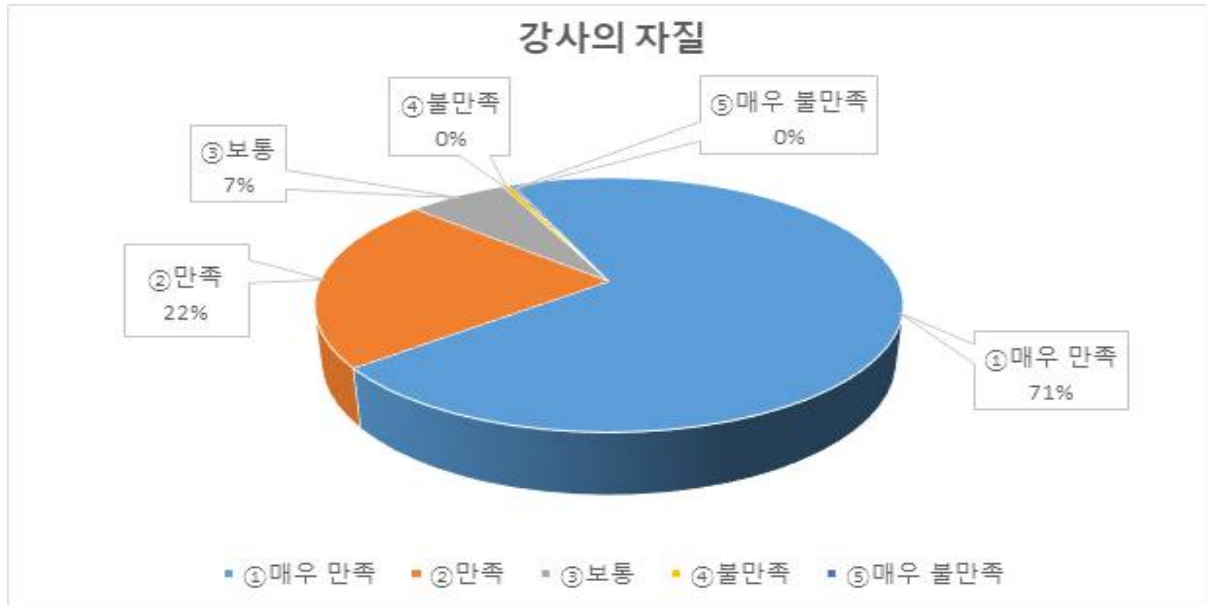
※ 응답자 대다수 학급별 20~25명 인원이 적절하다고 의견(197명 제시)

▶ 설문5) 교육에 다시 참여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	④아니다	⑤매우 아니다
463명	331명(71%)	91명(20%)	36명(8%)	3명(1%)	2명(0%)

▶ 설문6) 강사의 전문성에 만족하였다.



계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463명	327명(71%)	103명(22%)	30명(7%)	2명(0%)	1명(0%)

▶ 설문7) 강사에 대한 건의사항(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 응답 160명)

- 교육해주신 강사님들에 대한 고마움과 응원 메시지가 대부분
- 1, 2차시 강사 변경으로 교육내용 확인절차 및 교육내용 중복이 있었음
- 주입식·강의식 강의보다는 실습이나 체험활동 강의 희망

▶ 설문8) 인천시에 대한 건의사항(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 응답 136명)

-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 막연하게 학생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고 마음에 새길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고마움 표현
- 좋은 교재와 교육내용으로 취지가 좋아 매년 참가하고 싶음
- 교육 신청기간이 남았어도 선착순으로 먼저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웠고 교육자료(PPT, 활동지 등)가 공유되었으면 바람
- 워크북 교재외에 부교재 수업도 강의 수업에 포함해서 해주길 희망
- 인천시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교육받았으면 좋겠고, 다만 1~2차 선생님이 한분으로 연속성 있게 학습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
- 만족도 조사 설문을 해당 수업 일에 배부해 주는 것으로 건의
- 인천시 쓰레기 처리문제만 강조한 점은 조금 아쉬움